2054년 미래 불교를 상상하다

전문가들이 본 한국불교 미래

현실의 깨달음, 온라인서 가능할 것인가

출가 · 승가교육

시대의 변화는 승가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통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은 한문불전을 익히며 예불과 간경, 운력 등이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문불전과 더불어 각종 외국어를 교육하며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등의 원전도 배우고, 외전(外典)이라 하여 멀리하던 철학과 과학 등의 분야도 유명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들으며, 기존보다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행과 정진의 깊이가 보다 심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발전은 출가자의 역량을 확대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불교가 가지고 있던 고착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불교의 수행이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바로 온라인과 AI(인공지능)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두 화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큰 변화를 한 번 경험했다. 바로 법회의 온라인화이다. 현재도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사찰이 법회와 불교대학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찰을 찾는 신도의 수를 한때 크게 감소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법회에는 영상과 소리만 있을 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감동과 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불교의 각종 법회에 많은 사람이 직접 발길을 하여 오프라인에서 불교를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 AI 발전, 승가교육에 영향
法의 깊이 갈구하는 수행자 늘 것
오프라인 승가교육, 꾸준히 이어져야

이는 승가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행자나 사미·사미니의 교육자료로 인터넷 강좌를 제공한다. 이는 여러 이유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수행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수행에 대한 갈증을 더욱 크게 만들고, 소통의 부재가 다시금 교육기관을 찾게 하고 있다. 이럴 때 교육기관에서는 오프라인에서만 전해줄 수 있는 수행과 교육을 보다 견고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의 30년은 온라인 교육에 의한 갈증이 훨씬 깊어질 것이다.

손쉽게 접하는 편의를 찾지만, 오히려 사람간에 전할 수 있는 법의 깊이를 부족하게 만들어, 수행자가 다시금 수행도량을 찾게끔 만들 것이다. 최근 출가자 수가 감소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럴수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닦을 수 있는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불교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발전했고, 사람이 사람에게 법을 전하였기에 이러한 오프라인의 수행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더욱 간절해지고, 원류에서 그 법이 더욱 빛날 것이다.

그리고 AI의 등장은 인간이 그동안 도달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한 AI가 초월적 지식과 모습으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피로함을 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AI와의 공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깊이 성찰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AI가 30년 뒤엔 어떤 발전을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압도적인 발전 속에 인간은 과연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불교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던져준다.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불교의 시작점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이 화두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닦은 수행과 거기서 얻어진 법은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전해줄 것이다. 오프라인과 사람에 의한 승가교육과 수행은 자연스레 30년 뒤에도 사람들이 불교를 찾게 할 것이고, 불교는 그 시대의 발전을 품은 채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근원적 질문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제시하며 그곳에 그렇게 불교로서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현재 청년포교 성공해야 미래 있다

전법포교 분야

30년 뒤 한국불교의 전법포교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인구 및 종교성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세기적 변화이면서 종교의 흥망과 성쇠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며 20~30년의 한세대 내에 일어나는 각종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인구의 증감과 및 종교성의 변화는 세대별 종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사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30년 뒤에 종교 활동의 주류는 현재의 2~30대 들이다. 그들이 5~60대가 될 때 종교인구의 중심세대가 되며, 이들의 종교성과 종교활동이 종교인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30년 뒤의 전법교화는 현재의 2~30대의 연령층의 종교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2~30대는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종교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체험에 관심이 많고, 명상을 이해하고 실참해 보려는 욕구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상당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험을 했고, 직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세대에 속한다. 이들 세대는 결혼하는 비율도 낮아졌으며,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들 세대는 출가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출가자가 급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 종교활동 주류는 '현 2030'
불교문화체험, 명상에 관심 높아
기술 발전 인한 변화 적응 필요

이러한 경향은 30년 뒤의 한국불교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출가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신규 출가자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문제를 전문포교사들을 양성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포교사들을 계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30년 뒤에는 소수의 법력을 갖춘 훌륭한 스님들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다수의 전문포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시기를 지나면 출가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중산층을 구성했던 전문직업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의사, 교사 등에서 인력감소가 나타나는 반면에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 세대가 지날 때 까지 불교가 문화와 수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출가체험을 해보려는 젊은이들도 나타날 수 있다.

전법교화 분야에서는 문화포교와 수행포교가 활성화되고 사이버 사찰과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스님들을 통한 설법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것이다. 불교의 각종 경전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누구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재가불자들 중에서 교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와 연계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사찰관리·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찰 관리 로봇, 경전의 내용을 검색하고 해설해서 응대해주는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용도 30년 후에는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불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을 활용해 신행활동을 지원하는 본사급 사찰들도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